

한중 수교 30주년, 기로에 선 한국 기업

이데일리 신정은 베이징 특파원 hao1221@edaily.co.kr



지난 24일 한국과 중국이 정식으로 수교를 맺은 지 30주년을 맞았다. 중국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800년 역사의 황실 정원 '다오위타이(釣魚臺·조어대)'. 1992년 8월 24일 한중 수교 서명식이 열린 역사적인 곳에서 30년 만에 '한중수교 30주년 기념 리셉션'이 열렸다.

현장에서는 우리 기업인들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반갑게 대화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왕 부장은 우리 기업인들에게 한중 간의 우호가 중요하고 협력을 강화해야한다고 당부했다고 현장 관계자는 귀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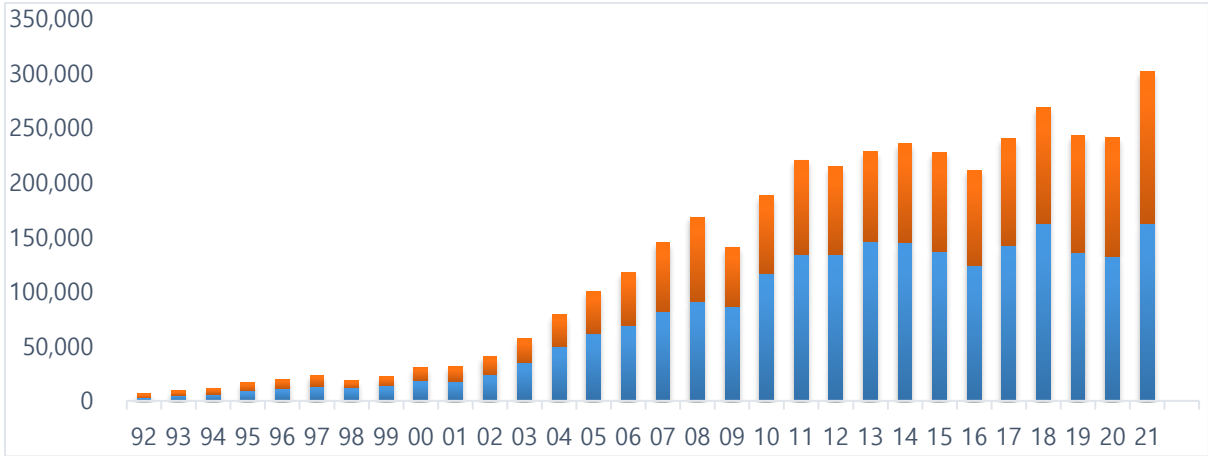
실제 한중 수교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은 크게 발전해 왔다. 1992년 이후 한중 교역액은 약 47배 증가하고 대중 투자는 누적 1000억달러(약 133조원)를 돌파했다.

또한 이기간 한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의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중국은 주요 2개국(G2)이 됐다. 한국과 중국 서로가 없었으면 이를 수 없었던 결과였다는 건 부정할 수 없다.

◇양국 관계 변화보다 중요한건 기업 전략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많은 한국 기업은 다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 한중 관계는 30주년을 맞아 미·중 패권 경쟁 구도 속에서 안보·경제 분야 발전의 기로에 놓인 건 사실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겸 SK그룹 회장은 지난달 제45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제주포럼 참석차 제주를 방문 해 "중국은 좋든 싫든 큰 시장인 것은 사실"이라는 발언을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우리 기업의 현 주소를 가장 잘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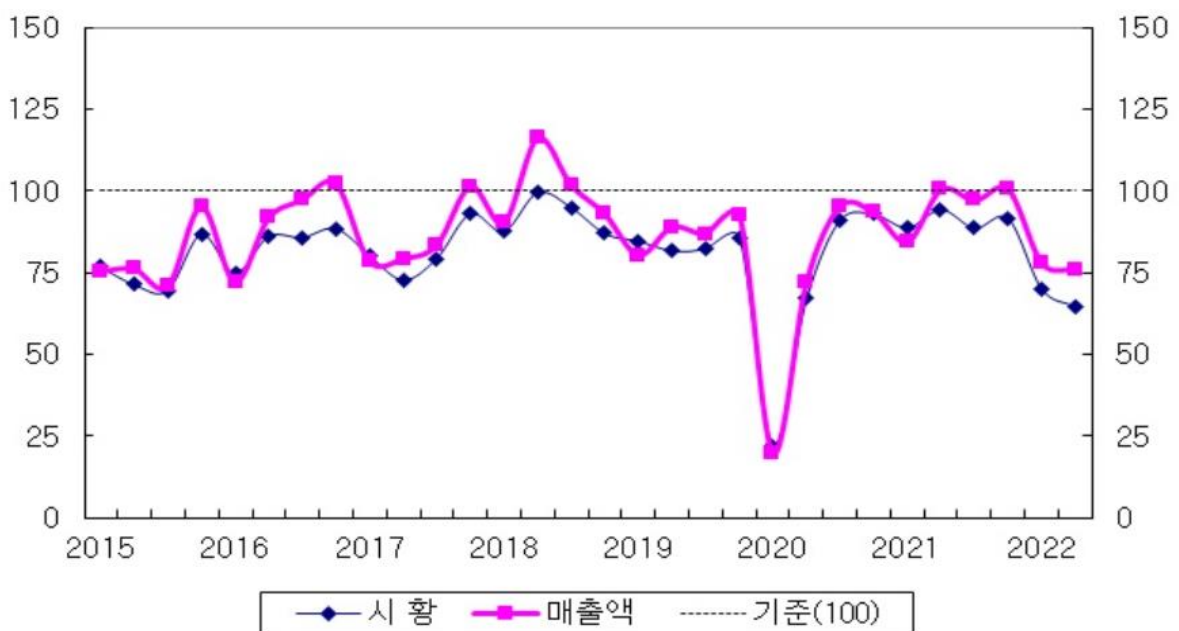


<한중 교역 동향. 자료=GTA(한국통계), KITA, 코트라>

양국 간 관계는 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곤 한다. 두가지 조사 결과를 비교해 보려고 한다.

먼저 중국 칭화대학교가 발표하는 '중국과 대국 관계 데이터베이스'다. 한중관계는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급격하게 상승해 2016년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태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후 소폭 회복되는 모습이다. 이 조사는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여러 방면에서 양국 간의 관계 변화를 수치화한 것이다.

두번째는 산업연구원이 발표하는 '중국 진출 한국기업 경기실태 조사'다. 기업들의 매출 경기실사지수(BSI)는 2016년 이후 100 아래로 떨어졌다가 2017년 말 다시 회복했고 등락을 반복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후 20까지 하락했고 최근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다. BSI는 경영실적, 판매, 비용, 경영환경, 애로요인 등에 대해 조사하고, 각 항목별 조사 결과들을 0~200 사이의 값으로 산출한다.



<중국 진출 한국기업 BSI. 자료=산업연구원>

두 조사를 종합하면 양국 관계가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는 가장 큰 변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낼 수 있다. 기업이 어떤 전략을 짜는지 따라 위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중국 시장에서 전략 변화에 성공한 한국 대표 기업으로는 삼성전자가 꼽힌다. 삼성전자는 중국에서 스마트폰, TV 등 공장을 접고 반도체에 집중해 매출을 확대했다.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현대자동차가 베이징 왕푸징에 처음으로 합작사가 아닌 브랜드 자체 시티스토어를 열고 '고급화, 친환경화' 이미지를 개선하려는 새로운 전략의 변화도 감지된다.

◇“정치 경제 분리해 이익 추구해야”

윤석열 정권 이후 한국이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에서 '안미경세'(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로 본격 전환하고 있다는 움직임에 중국에 진출한 많은 기업들이 긴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국제정치학회가 주최한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특별 학술회에 참석해 “경제 안보 시대 중국은 우리에게 중요한 나라”라면서 “중국은 중요 경제파트너이고, 우리와 밀접하게 협력하는 중국을 빼놓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논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미중 간 갈등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한국과 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고 협력동반자임도 틀림없다.

중국 내 대표 무역 전문가인 투신촨(屠新泉) 중국경제무역대 세계무역기구(WTO)연구소장은 기자와 인터뷰에서 “한중 무역은 수교 이후 30년 동안 빠르게 성장했고, 양국이 상호보완할 수 있는 중요한 관계라는 건 변함이 없다”며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 각국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